



## 2019 화천산천어축제 해외마케팅 '부르릉' '눈·얼음 없는' 동남아 시장서 유치 활동

세계적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한 강원 화천군 '산천어축제'의 준비작업이 해외 마케팅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했다.

화천군은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6박 7일에 걸쳐 동남아시아 12개 메이저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순회 해외마케팅 활동을 벌였다.

화천산천어축제는 그동안 5년 연속 국내 대표축제로 선정된 데 이어 내년 도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 육성축제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내년 1월 5일 개막하는 2019 산천어축제를 3개월가량 앞두고 해외 시장에서부터 축제 알리기에 나섰다.

최문순 화천군수와 담당 직원 등 대표단은 10월 28일 대만의 여행사를 시작으로 동남아 4개국을 찾아 축제를 소개했다.

이어 10월 30일 말레이시아로 이동해 이틀간 현지 여행사를 방문하고, 11월 1일과 2일에는 태국과 홍콩을 찾아 축제를 알렸다.

화천군은 이들 여행사와의 동반관계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해외 단체와 자유여행객을 유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축제 때는 올해 실적(12만여 명)을 뛰어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산천어축제를 명실상부한 세계축제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해외 순회 설명회에 앞서 화천군은 10월 12일 서울에서 24개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축제 설명회를 열었다.

화천군은 축제 마케팅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조성 사업도 본격 시작한다.

우선 올 12월 말 개장 예정인 선등가리를 조성하는 설계작업에 착수한다.

선등가리는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축제장 주변 도심 거리에 등(燈) 2만7천여 개에 불을 밝히는 이벤트다.

축제장 주변 제초 작업을 비롯해 제설장비 점검, 하천 배수로 정비 사업도 벌인다.

2019 화천산천어축제는 내년 1월 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축제 방향은 그동안 강조해온 체류형 축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매년 150만 명 이상이 찾는 축제지만, 당일 여행객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축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방문객들이 체류하면서 숙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천군은 체류형 축제가 될 수 있게 메인 프로그램인 낚시터 운영을 다양화하고 볼거리·즐길 거리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축제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기보다 발로 뛰는 마케팅에 집중했던 것이 화천산천어축제의 성공비결이었다"며 "내년 행사는 글로벌 육성축제로 지정된 만큼 명성에 걸맞은 글로벌 겨울 이벤트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